

# '1004의 섬' 신안, 희귀동식물 다 모였네

### 국토부, 무인도서 170곳 실태조사

### 소사나무·검은머리물떼새·해달 등 서식 확인

### 보존가치 매우 높은 24곳 '절대보전도서' 분류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내 무인도서 170곳이 희귀 동식물의 보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은 10일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7년부터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안군에 속한 170개의 무인도서에 한국특산종인 소사나무, 멸종위기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매는 물론 해달 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들 무인도서 가운데 특히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절대보전도서 24곳, 일정한 행위 및 일시적 출입제한이 필요한 준보전 도서가 47곳 등으로 분류됐다.

식물은 하의면에 위치한 황도에서 가장 많이 관찰하고, 전체적으로 36과 58종 8변종으로 총 66분류군이 조사됐다. 한국특산종으로 소사나무, 귀화식물은 대나무, 털배새귀리 등이 관찰됐고, 이 외에 후박나무, 다정큰나무, 까치밥나무, 돈나무, 예덕나무, 사철나무, 송악, 갯까치수영, 새비나무, 호자덩굴 등이 폭넓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로는 멸종위기동물 검은머리물떼새(장산면 등), 흰뺨검둥오리, 직박구리, 방울새, 갈새, 멧비둘기, 참새, 숲새 등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멸종위기동물 1급인 매는 신안군 흑산



흰뺨검둥오리



해달



검은머리물떼새

면 가거도리와 다물도리, 만재도리, 태도리, 영산리, 흥도리, 예리 등지에서 발견됐다. 포유류인 해달이 하태도 서리 인근에서, 고라니, 굴토끼 등은 재원도에서 발견됐다.

이 외 호랑나비 등 12과 14종과 해양무척추동물의 참국수나물 등 21종

과 바위수염 등 27종의 해조류가 도서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형조사 결과 외해양성의 영향을 받는 만재도와 흥도 등지에서 해식동, 시스텍, 노치, 해식에, 절리, 포트를 등이 관찰돼 우수한 경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과 바위수염 등 27종의 해조류가 도서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형조사 결과 외해양성의 영향을 받는 만재도와 흥도 등지에서 해식동, 시스텍, 노치, 해식에, 절리, 포트를 등이 관찰돼 우수한 경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목포시, 서민 생활안정 8대 시책 추진

## 지역경제 살리고 복지행정 쟁점

목포시가 올해 시정방침으로 '살아나는 지역경제, 보살피는 복지행정'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 8대 서민생활안정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목포시는 10일 "올 연말까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 육성,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확대,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 강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밀착 구제, 불량식품 척결, 대부업체 약성고리사채 근절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현재 10곳인 사회적 기업을 15곳으로 늘리고 청년,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자율가격 인하업소 지정 운영, 간담회와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고 창조시장,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이차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쉼터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보안관 배치 및 공무원 학교담당장 지정 운영,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검찰, 경찰, 세무서 등의 협조를 얻어 불량식품 척결, 고리사채 근절 등을 추진, 서민생활안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자연사박물관 '주말학교' 열린다

### 다양한 과학실험 등 인기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학교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자연사박물관은 10일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바쁜 주말 여가문화 정립을 위해 차별화된 과학문화서비스인 '주말학교'를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학교는 전남 목포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자연사박물관 4D영상관 입구 상설체험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학생들은 지층속 화석을 발견하거나 실생활에 잘 이용되는 유리세린 특성으로 따라다니는 물체를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



지층속 화석을 발견해보거나 실생활에 잘 이용되는 유리세린 특성으로 따라다니는 물체를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 또 특수 필름이 열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는 특성을 이용한 '신비한 매직 풀리 체험'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 서울 '한마음 대회' 성료

완도군이 '2014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1년 앞둔 10일 서울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수도권 향우, 명예회장, 정치인, 연예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공 개최를 위한 서포터가 될 것을 다짐했으며, 홍보대사 위촉, 성공기원 메시지 상영, 입장권 구매 약정식, 30만 향우 고향 방문의 해 선포 등 대국민 참여 붐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했다.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장인 김중식 완도군수는 이 자리에서 "해조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제2의 청해진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바다 속 인류

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내년 4월11일부터 한 달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육지 식량자원의 오염에 따른 미래 대체 자원으로 해조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완도군은 최근 천안시와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 오는 8월 30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천안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와 '2014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기간 각종 문화공연과 지역 특별 홍보관을 교환, 운영하기로 했다. 완도군과 천안시는 지난 2007년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5월 1일 '해남군민의 날' 슬로건 확정

## '마음 열어 하나로 꿈을 모아 미래로'

해남군이 오는 5월1일 개최될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에 사용될 공식 슬로건을 선정했다.

군은 10일 "최근 제2차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남읍사무소 강성민씨가 응모한 '마음 열어 하나로 꿈을 모아 미래로'를 최우수작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작에는 세무회계과 김상수씨가 응모한 '화합하

고 역동하는 희망찬 땅글해남', 행정지원과 임준연씨가 응모한 '화합하는 해남군민 함께 가는 희망해남'이 선정됐다.

선정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제40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의 각종 홍보물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3월19일부터 3월29일까지 실시한 제40회 군민의 날 슬로건 공모에는 32명이 86건을 응모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전북

## '춘향국악대전' 대폭 개편

### 2개 종목 축소... '사랑의 광장'서 개최

명인·명창의 등용문인 춘향국악대전이 대상 상금을 줄이고, 개최장소도 변경하는 등 전면 개편된다.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는 10일 "지비용과 효율적인 대회운영으로 진정성 있는 명인·명창을 선별하기 위해 과도한 시상금 지급을 지양하는 등 새로운 운영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악협회는 관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의 상금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최우수상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종목도 명창부 등 15개 종목에

서 가야금병창 일반·학생부를 기악연약부로 통합하는 등 2개 종목을 축소했다. 또 개최장소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실외인 '사랑의 광장'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동안 실내에서 개최해오면서 춘향제 기간 가장 소외받은 행사로 전락해 국악인만의 잔치로 끝나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신인부를 신설해 전공자가 아닌 일반 아마추어 활동가와 동호인에게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심사위원 사례금, 운영비삭감, 온라인홍보 전략 강화, 운영·진행비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정읍 버스터미널 새로 짓는다

### 현 부지에 3층 규모로...KTX정읍역·고창 등 5개 시·군 환승 역할 기대

정읍의 관문인 버스터미널이 현 부지에 신축된다.

정읍시는 10일 현 터미널부지에 새 건물을 짓는 기공식을 하고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새 터미널은 5분 거리의 KTX정읍역과 함께 정읍, 고창, 부안, 순창, 장성 등 일대 5개 시군의 환승터미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시비 16억원과 운영자 부담금 4억원을 들여 현 터

미널 부지 내에 지상 3층(전체 1만 360㎡) 규모의 새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건물 1층에는 대합실, 매표소, 상점 이, 2층과 3층에는 커피숍과 사무실이 입주한다.

아울러 터미널 옆 땅 551㎡를 사 새 택시승강장과 휴식공간도 만든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인근에 추진하는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과 함께 터미널

일대와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시내 중심에 있는 터미널은 인접 지역과의 교통 디딤돌 역할을 한다"며 "이번 사업이 끝나면 신축 중인 KTX역사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와 일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 '밥상위의 힐링, 장류' 포럼 개최

센터에서 '밥상 위의 힐링과 장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장류제조업체 및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군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장류와 힐링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ilee@kwangju.co.kr

국내 장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순창군이 한국장류기술연구회와 한국장류협회와 함께 10일 서울 aT센터에서 '밥상 위의 힐링과 장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장류제조업체 및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군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장류와 힐링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ilee@kwangju.co.kr

## 단신

### 고창군 19개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2억 확보

고창군은 10일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19개가 선정돼 예산 202억3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지역소득 창출 및 브랜드향상 분야로 IT 품종 장어 생산관리시스템(5억4000만원), 지역일자리창출(2억원), 시설원예품 질개선(17억5000만원), 농식품 6차 산업화(30억원), 검은색 과일 G.M.B

활성화 등 지역연계협력사업(9억 2000만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6억원), 고구마 향토산업육성사업(30억원) 등이다.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활성화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4억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산실 공연(1억8000만원), 레저스포츠지원(10억원), 축제지원(1억3000만원)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고창=백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40MW급 태양광발전사업 MOU 체결

군산시가 10일 문동신 시장과 김삼열 OCI(주) 부회장, 김수관(주)포스코엔지니어링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까지 40MW급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 등에 1단계(2013~2014년) 10MW급, 2단계(2015~2017년) 30

MW급 등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40MW급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4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 연간 5만2000MW전력을 생산, 연간 석유 3500만 배럴, 석탄 2160만 이상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백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 농업인 대상 e-비즈니스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개월 간의 농업인 e-비즈니스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농업인 e-비즈니스 기본교육은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및 2차 가공생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

한 전자상거래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전자상거래 개론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토샵,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SNS 사용법 등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전주시, IT·CT 기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

전주시는 도내 IT·CT 기업들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마케팅 주요사업은 해외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와 국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이다. 국내외 공동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

담회의 경우 부스비 및 통역비 전액과 항공료 50%를,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전체 비용의 80% 이내에서, 해외 전시회는 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8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는 063-281-4114로 하면 된다. /전주=백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티켓 6분만에 매진

###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티켓이 예매 시작 6분26초 만에 매진됐다.

(재)전주국제영화제는 10일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식 예매가 6분26초 만에 매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의 개·폐막식 예매는 항상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왔다.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바로 세계적인 거장 로망 캄데 감독의 신작인 '폭스파이어'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명되는 영미권 작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원작을 영화 한 작품이다.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5일부터 5월3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주=백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

### 30여 업체 250명 채용

'2013년 군산시 상반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10일 군산대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군산=백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군산지역 실업률 완화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능력 향상과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여 업체가 대거 참여해 250여 명을 채용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군산지역 실업률 완화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능력 향상과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여 업체가 대거 참여해 250여 명을 채용했다. /군산=백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